

비행기가 시간을 안지키는 이유는 뭘까? 비행기의 연식과 연착의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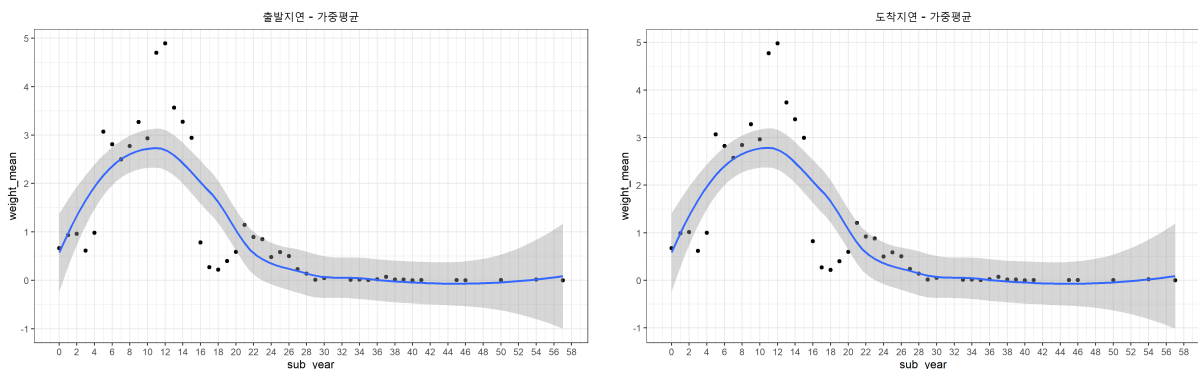
비행기의 연식과 연착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. 그래프와 표를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**연식과 연착의 관계는 없다.**

비행기 : ♡ ♡ ^ ^ ♡ ♡
 + ♡ (☺'-'☺) ♡ +
 ┌─♡─U U─♡─┐
 ♡ 응 내 맘이야~ ♡
 ┌─♡───♡─┐ ☺

연식에 따른 출발지연과 도착지연의 값을 가중평균을 이용해 구해봤다. 예를 들어 연식에 따른 평균 도착지연 시간과 비행기 수를 구한 표가 왼쪽과 같다면, 비행기 수/전체 비행기 수를 가중치로 둔다. 구한 가중치에 평균 도착지연을 곱해 가중평균을 만든다. 이렇게 만든 표는 오른쪽과 같다.

연식	평균 도착지연	비행기 수	연식	평균 도착지연	비행기 수	가중치	가중평균
0	42	500	0	42	500	0.8278	34.7676
1	31	100	1	31	100	0.1656	5.1336
2	80	4	2	80	4	0.0066	0.528

가중평균으로 그린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. 왼쪽은 출발지연 났을 때의 가중평균으로 그린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도착지연 났을 때의 가중평균으로 그린 그래프이다.



그래프만을 봤을 때 연식과 연착과의 관계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.

연식 \ 연착	0 ~ 4	5 ~ 9	10 ~ 14	15 ~
연착 30분 이하	4660 (56.705%)	12260 (50.178%)	17360 (51.249%)	9958 (54.415%)
연착 30분 초과 ~ 60분 이하	1643 (19.993%)	5275 (21.590%)	7407 (21.866%)	3724 (20.350%)
연착 60분 초과	1915 (23.303%)	6898 (28.232%)	9107 (26.885%)	4618 (25.235%)

위는 연식에 따른 출발지연 수를 30분 이하 일 때, 30분 초과~60분 이하 일 때, 60분 초과일 때로 나누어 표로 나타냈다. 연식이 늘어날 때 연착의 비율이 늘어나는 모습은 볼 수 없다. 그러므로 **연식과 연착의 관계는 상관 관계가 없다.**

"Written by Choi, Ji-Hyeon"

∠(↯↯)∠_